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중에서도 소위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등장하게 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믿음과 은총의 종교'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과 은총의
종교인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고쳐서 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소위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기독교를 가톨릭교,
'보편적이다'라는 의미의

가톨릭교회라고 불렀다고 보면

이 가톨릭교회가 중세 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에 유럽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발휘하던 와중에 소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습니다만

면죄부를 포함해서 교회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예수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망각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오도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반박을 하죠.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포함해서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비판문을 붙이게 되면서
소위 자신도 예상 못 했습니다만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트라는 게
'저항하다' '반항하다'라고 하면

이 운동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아주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 결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황청 시스템과 다른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종교가

북유럽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개신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북유럽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독교의 가르침을 '개신교'라고
부른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주된 내용이

이제 가톨릭이 전통적인 방식의
의례들을 강조하고

또 의례를 집전하는 종교인들,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이런 교계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그다음에 특히 교황청 교구와 같은
위계적인 시스템들을 강조했다고 보면

개신교에는 그 조직적인 혹은
제도화된 시스템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만민 사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맡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단히 근본적인, 혁명적인
정신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그 과정에서 강조되는 게

믿음 하고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사제중심주의에도 반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신약성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랍어로, 그리스어로 적혔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어로 적힌 성경들이
이후에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라틴어,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미사를 지내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 의례를 행할 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된 미사를 집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문자니까

당시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핵심적이고 광범하게
전개된 것이 뭐냐 하면

라틴어 성경을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현지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가 아닌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독일 일상어로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것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죠.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현지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종교재판에 걸려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굉장히 큰 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부들이라든지 사제들이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대중화시키고 민중화시키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뭐였냐고 하면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신의 말씀이 적힌 책을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사색함으로써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신을
직접 만나겠다는 거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제라든지, 의례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볼 때 전통이 강조했던
번잡한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중요한 모토라고 하는 게

예컨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혹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런 식의 구호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예수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성경 속에서 개인이 직접 발견해서

그 발견한 진리를
개인의 삶 속에서 구현하라고 하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평등주의적인 관점의
가르침들이 본격화됐다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교황청 중심의 천주교와는

개신교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컨대 개신교의 특징은
교회 건물에서도 등장합니다.

가톨릭은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보통 교회라고 하는 성소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당과 교회를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당에 가보시면
모자이크를 포함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상,
그다음에 성모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형상화된
무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개신교 중심의
교회에 가보면

벽도 하얗게 칠해져 있고
모자이크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벽에
예수의 모습이 조각이 안 된

그냥 십자가만 단출하게 걸려있고
성모마리아 상도 없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신과
인간의 사이를 매개해 주는

상징이라든지 혹은 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개신교는
없애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비슷한 관점에서 이슬람의 성전들에
가보면 이슬람 성전에도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의 형상을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인간적인 모습이든 뭐든
표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도 금하지만

소위 말해서 형상화시키는 것들을 금해서

저희가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 건물
혹은 성전 건물 안을 장식을 하지

형상화된 형태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톨릭은
의례, 형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의 귀결로써
개신교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초창기에 전했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본받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천하라고 한 것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고 따라서 그것들을 구현하라고 하는

대단히 철저한 태도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도

가톨릭의 조직, 제도 위계적인 시스템

그다음에 중간에 성모 마리아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사제계급들을

대단히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전하는 신앙의 형태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아직도 교황청을 중심으로

모든 로마 카톨릭 소속,
지역은 다르더라도 그 나라의 성당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성당들이
로마 교황청에 소속돼 있다고 하면

소위 개신교 전통에서는
개별 교회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이것을 우리가 개교회주의라고 하면

개교회주의가 훨씬 더 강한 원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사실은
개신교의 역동성을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개신교가 가톨릭과 다른
한계점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한계라고 표현해서
문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로마의 가톨릭의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새로운 분파나 교파나

어쨌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서

다른 가톨릭과 다른 방식의

교회라든지 조직이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몇백 년이 넘는 동안에

로마 가톨릭, 로마 교황청 중심으로

여전히 단일한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개신교는 그것에 비해서
개교회주의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해석권한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다양한 교회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을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소위
기독교의 분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가 가톨릭교회,
로마 가톨릭교회하고

그다음에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1054년에 갈라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톨릭 중에서도
영국의 가톨릭이 소위

결혼 문제를 가지고서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것으로 또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 내에서도

소위 신교 중심,
종교개혁에 힘입어서

퓨리터니즘,
그러니까 미국을 만들게 된

필그림들을 보내게 되는
신교 운동들도 일어나고

또 그 안의 감리교회라든지
구세군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그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교회와
교파들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지
'모르몬교'와 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심의

새로운 종파라든지 교파들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개신교 중심의
국가들에서는 끊임없이

성경의 새로운 해석과 실천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결국은 로마 가톨릭과 달리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없으므로

성경의 역동적인 해석에 입각한
새로운 분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는 근대화 이후에
한국에 전파가 됐습니다만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

사회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 중에 또 한국만큼

개신교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래 종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큰 규모의 예를 들어서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천주교에 버금가는
큰 세계적인 종교가

종교 중에서는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어쨌든 개신교 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신도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보면
대단히 놀라운 발전을

한국 개신교가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어쨌든
가톨릭에 비하면

신부님 혹은 수녀님과 같은
교계의 사제계급에 대한 시스템도

훨씬 더 간단하고 또 특히나
저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중요한 인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지만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기타 다른 성인이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크게 신앙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일은 잘 없죠.

그리고 동시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포함해서 7가지
중요한 성사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도 개신교로 오면
성만찬이라든지

세례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중요함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훨씬 더 간편화되고

개인의 현대화된 신앙의 형태에
더욱더 적합한 형태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개신교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과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

매개되지 않는 상태로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와 쌍벽을 이루면서

또 기독교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